

4 Leinwände

Klasse Anke Doberauer

Projekt zur Jahresausstellung 2016 der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Akademiestr. 2-4 / 80799 München
Raum A.O1.17

17. - 24. Juli 2016 / So 17. - Fr 22.07. 14-21 Uhr / Sa 23. - So 24.07. 11-21 Uhr

Blanca Amorós / Burcu Bilgiç / Anaïs Cousin / Andreana Dobrevá / Julia Emslander / Julia Ferner
Amelie Köppel / Sebastian Maas / Bastian Meindl / Moritz Moll / Jeanette Scheina / Eunji Seo
Dominik Theobald / Junpei Uchida / Karolina Vocke / Jia Yoo

네 개의 캔버스(4 Leinwände)

뮌헨 미술 아카데미(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München) 2016 년 연간전시 프로젝트
- 클라쎄 Prof. 안케 도베라우어(Klasse prof. Anke Doberauer)

전시 제목인 “네 개의 캔버스(4 Leinwände)”는 캔버스 천으로 완전히 덮여진 전시 공간의 네 개의 벽과 연관된다. 독일어로 “Leinwand”는 캔버스라고 번역되므로, “네 개의 캔버스”라고 직역되지만, 물론 독일어로 “Lein”이 리넨을 의미하고 “Wand”가 벽을 의미하므로 “4 개의 리넨 벽”이라고도 해석 가능하겠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화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오마주이다. 캔버스는 1500 년대 말부터 회화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구이며, 이것의 사용으로 대형회화들은 벽화와는 달리 운반이 용이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캔버스는 미술대학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재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의 벽을 덮은 이 사치스러운 장식은 오직 전시만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고, 전시 후 100% 재활용 됨으로써 많은 그림들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또한 벽에 천을 두른 형식은 현대 박물관의 선구로 여겨지고 있는 서양미술사 속 “경이의 방(Kunst- und Wunderkammern/ Cabinet of Curiosities)”의 귀족적인 직물을 실내 벽에 붙인 방식에서 인용하였다.

그리자이유(Grisaille)-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사용 된 미술 기법-로 그려진 전시실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때때로 캔버스 천의 구조를 희미하게 비쳐 보이게 하므로 특별하게 해석 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미술관과 그 안에서 전시되고 있는 오브제들, 디지털 시대 속 일상의 묘사, 아울러 시각적 경험들의 재현에 대한 주제들을 다양한 추상의 단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nfo:

klasseankedoberauer@gmail.com

www.klasse-doberauer.de